

海岳文集



洪筦文集



聖如題



序

釜山 春海病院長 醫學博士 金永韶 請余序其先大人遺著 曰海岳集者 余不敢辭其請 乃受而讀之 正不禁留洋向若之歎 蓋海岳子 生稟異姿 魁傑而穎悟 學通廣奧博覽而精研 早抱風泉黍離之感 慷慨悲憤 未嘗一日忘光復 不甘爲一學究而止也而 及夫已未事謬 避身遼西 備經艱楚 還隱達市 遂發其蘊負 一以精神 領導新幹會 則實踐也 一以文章 著其所志所學 對照東西 參攷古今 科學哲理 靡不歷舉而痛析之則 此海岳集二十卷者是也 噫其偉矣 惜乎不得壽 不見祖國光復 以快洩其平生之憂鬱 並未克大充其作 以益醒世人之耳目 此則聞海岳子之風而讀是集者 當不能不一隕涕而重摩挲也 永韶君 爲是之痛 方刊布是集于海內外 誠然則海岳子之名 將永有傳於天下矣 亦何恨不伸於身前也耶 古之君子 類多如此也 余於海岳子 生居隣鄉 其寓於達府也 歲月亦與之同 相從日久 海岳子長余五歲 蓋儕輩也 然其學問氣槩 余視之 不啻壤虫之於鴻鵠而 海岳子特愛好余相得甚 不見今十八年矣 隔世咳唾 作卷中人 余惡能無曠感而 得以托名卷端 爲幸 海岳子有三子 皆世所稱鳳嘴麟角而 永韶君又以釜山醫師會長與汎太平洋外科學會副會長 馳名中外 昔蘇子瞻云 有其實而無其名者 未有矣 後海岳子其真 有其實者也歟

丁酉陽復節 眞城 李世鎬 序

序

吾宗近世 有鉅儒偉丈夫 曰海岳先生 諱光鍾 一名華鍾 字仲度 生稟異姿 穎悟絕倫 於書無所不讀 於理無所不究 蓋將兼理學經濟文章三門而 統貫之 無所讓也 遽值宗國淪喪 義憤所激 常不平 已未獨立運動作 遂投袂而起於大邱 草宣言書 糾同志而舉事 事未集而敵邏至 乃亡命遼東 備嘗艱苦 伺稍間 潛歸舊國 遁跡達府市 業軒岐之術以度日 此赤先生素所研窮也而 胸中磊落之氣 每不能自抑 於是 發憤著書 以瀉其抱負 今載在文集中諸文字是也 妙自死生性命之源 以至現代機學之尚 靡不透徹馳騁 發揮闡明 裏然成一大謨秩 未釐整而 不幸以庚辰七月十七日 奄啓手足 嗚呼 使先生 天假以年 得卒其所志則 其所著 當益富且精 豈僅止於是哉 使又復延至乙酉光復則 以其氣概鑑識 當大有所措劃於 建立而不得也則 凡知先生者 無不掩涕太息而 起追悼不念 然即是集之所傳而善續者 亦能知先生之 爲鉅儒偉丈夫也則 庸何傷也 先生之孤永韶 以新醫出身 名著海外 將刊先生文集 以公諸世 以先生與吾先人 交契最深而 不肖辱先生知愛厚 屬編次之役而重爲之序 顧蒙陋劣識 安足以知是集之全而 諠有所不敢辭者 乃謹略加 括 書之如此 僭妄是罪云爾

丁酉小春望日 族侄 濟宇鹽手謹序

海岳文集序

『海岳文集』是釜山春海病院院長金永韶博士先大人的心血結晶。一九八二年金博士訪問美州時，特別由幼女陪同轉道康橋，親自到哈佛大學把業已出版幾達三十年之久的文集一冊簽贈，而且還附送了兩首即興詩。從他那兩首五言絕句，得悉金博士想要重刊『海岳文集』的意願。金博士以古稀之年風塵僕僕地從釜山飛到美東，專程尋訪可能為其先大人重刊文集寫一序文的知音，這種追慕親情的志趣令人感動。我雖深覺自己昏慣如昔，極難應命，却不敢辭其所請遂答應受而讀之了。

『海岳文集』的著者，金先生諱光鎮字仲度（一八八五—一九四〇）是位「風聲、雨聲、讀書聲、聲聲入耳，家事、國事、天下事、事事關心」的智識分子。他的文集二十卷，幾乎全用五言體寫出，是一位愛國志士深感亡國、亡天下之痛而哀鳴、而怒吼、而苦思冥想的心聲。這位曾經直接參加韓國獨立革命運動、並因事敗而亡命遼東的讀書人，能在日本軍閥控制之下，發揮東亞文明的抗議精神，一絲不苟地寫出三十多萬個方塊漢字，傾吐胸中積鬱經年的悲憤以激勵後進，是何等毅力！何等胸襟！

更難能可貴的是，『海岳文集』所體現的不僅是熱情奔放的感性，而且也是經過動心忍性的工夫而凝定的理性。

金先生的志趣不只是為歷史作見證而已。他所留下的，固然是韓國獨立志士不屈不撓的風骨，但『海岳文集』的基本精神是以檢討過去和把握現在為策勵將來作準備。這種不只為過去流淚、為現在焦慮，而且要為將來拓展新希望、新境界的抱負，本是金先生那一代（也就是比中國五四更早的三一運動）的

韓國智識分子的共識。因此，《海岳文集》的思想很有代表性，是當代東亞史中值得大書特書的一頁。

自從鴉片戰爭以來，深受儒家禮樂教化影響的東亞文明，因不堪西方船堅炮利的襲擊，暴露出柔弱、退縮、消極、內向和自卑種種弊病。只不過半個世紀，再維繫朝鮮社會長達四百年的儒家倫理就因抵擋不住

西化的浪潮而變成了歷史包袱。甲午戰爭之後，日本的軍國主義揚棄禮樂教化而以霸權爭奪為生

存之道，處處表現社會達爾文主義的侵略意識。金先生日擊朝鮮民族受蹂躪的悲慘命運也，不禁發出反儒的呼聲。「可憐儒教人朝鮮 階級服從為道德 南北老少分四色 互相傾陷不顧國」

為了救國，金先生以為必須澈底消除儒家「高談性命」、「輕視功利」、「居易俟命」、「收斂」、「主敬」和「偽善」等等弊病。他的反儒思想和五四時代中國學人群起而攻打「孔家店」的反傳說思想有許多相類似的。他責備安裕不該把儒學帶入朝鮮，貶斥為（朝野共慕名）的退溪為不能挺身担当的隱士，甚至宣稱漢文是箝制民族創發生機的禍源。

不過，金先生的反儒絕非盲目地向傳統進軍而已。他的目標是想突破腐儒和陋儒的限隔，俾便在傳統中引發可以澆灌新田地的泉源活水。他以「不治儒術習韜兵」自況，提出機學、進取、用奇、伸收等

策畧為救國之道。他堅信「世間大小事非氣不能行，天下偉功業盡是血汗成」，所以仁人志士必須勇

猛精進培養英雄事業。他強調決心的重要，提倡極端思想，神速行動和斷絕狐疑是「決心法」的三個

特性。他呼籲愛國人士要學子房的勇氣和胆力，「英雄大事業，俱從決心強，子房真有怒，怒秦秦乃亡」。他心儀諸葛亮的智慧和韜晦，「知機最精者，千古惟孔明」。他稱美唐太宗的「尚欲減情」是將

家制敵的良策。他認為從子房的血氣之勇人手，配合孔明的玄默深沈，終可達到太宗的霸業。

「海岳文集」爲了凸顯「兵家雖貴謀、心如血汗聖」和「欲上立志者、智勇始爲貴」的運思途徑，特別採取了比較研究的方式。他從各種不同的角度反覆討論儒、仙、兵三家的優劣。他的結論是：「在天這個天崩地裂和弱肉強食的危機時代，儒家的平實、虔敬和德育已不能應付頑強的敵人，必須以脫俗的靜觀融會知機的決斷，才可能殺出一條生存的血路。」《海岳文集》的主旨即是爲這個悲壯的民族自決提供心理建設的方案。他討論沈浮、剛柔、緩急、動靜、伸歛、質情、知行等極富啓發的課題都是針對這個主旨而立言的。他的「陽明論」對王學「知行合一」、「心即理」、「致良知」及「事上磨練」幾個基題作了一番分疏，在以朱學掛帥的朝鮮儒學史中，他提出不少發前人之所未發的見解。不過，金先生雖對陽明的豪情及其打破生死一關的勇氣再三致意，他基本上並不贊同陽明在心上作工夫的儒門家法。

放眼將來，金先生認爲韓國的富強之道必須建構在科學和憲法的基礎上。培根的經驗科學和英國的大憲章便成爲金先生所謂「國家長久保」的基礎。不過，金先生的思想雖有濃厚的西化色彩，他對中醫卸下過很大的工夫，而且對許多細節的藥理問題提出了自己的看法。從他的詩裏得知他曾身體力行三全之法，也就是保全精、氣、神以爲修養身心的基本法則。其實，從《海岳文集》所引用的典籍可以得知金先生是位博覽群書的文士。他的「華陽講會日記」短短十天之內就瀏覽了幾部大書，正是「弱冠歷訪國內賢碩、多所見得」的注腳。他能旁徵博引用各種資料來說明自己的觀點，也是涉獵經史子集而尤其致意于實學的明證。

一九八三年，我應退溪學會之邀訪問漢城，永韶博士携夫人從釜山專程趕來晤談，他特別珍惜金先生臨終前的一首七律

中郎高義天上雪 學士芳名翰花春

萬里逢君今握手 藍田先玉始知真

一片台灣泛海中 如今回憶鄭成功

吾人安得喬松壽 聊把滄桑見始終

可憐天上麒麟誼 散降人間未盡情

每遇難時飛錫救 傍觀不禁感嘆聲

這首「贈蘇學士景松君」的詩反映了中韓交誼的一段佳話。據永韶博士的記載、祖籍高雄鳳山的

蘇景松博士和他原是京都同志社中學的同學。蘇先生曾補助他就學醫專四年的學費。在老先生病篤

時蘇先生又特別輟其課從日本趕去探望、並且代理醫務數旬、使其專力於侍病。蘇金兩家結交五十年之久、

目前還常往來、情誼更篤。

金先生去世滿五年後韓國才光復獨立。四十年來又經過多少變革、目前的時代已大不相同、但『海岳文集』是有實感而發的心語。只要設身處地不難想見一位豪傑之士因痛感時艱而奮筆陳辭的神情。

一九八三年六月廿六日

美國哈佛大學 杜維明 謹序

海岳文集序 譯

「海岳文集」은 釜山 春海病院 院長 金永韶 博士의 先大人께서 心血을 기울여 이룩한 結晶이다.

一九八二年 金博士는 美洲를 訪問했을 때, 일부러 따님을 帶同하고 親히 하버드 大學校로 찾아 와서 나에게 三十年이나 오래된 지난 날에 出版된 文集一冊을 記名贈呈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歸國後에는 卽興詩 두 首를 보내 주셨다. 그 두 首의 五言絶句에서 나는 金博士가 「海岳文集」의 重刊을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金博士는 古稀의 나이를 맞은 해에 떠나면 旅路를 무릅쓰고 釜山 땅에서 美國 東部까지 건너 와서 그의 先大人의 重刊文集에 序文을 써 달라는 懇曲한 消息을 傳하려고 일부러 나를 찾아 오셨는데, 肉親의 情을 追慕하는 이와 같은 가혹한 뜻은 사람을 感動시키고도 남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비록 그 지없이 마음이 暗鬱하고 散亂함을 느꼈고 또한 그의 請을 받아 들이기가 至極히 어려운 것임을 깨닫기는 했으면서도, 오히려 그의 請하는 바를 辭讓할 수가 없어, 마침내 그 請을 받아 들이기로 하고, 그 文集을 完讀했던 것이다.

「海岳文集」의 著者인 金先生(一八八五—一九四〇年)은 諱가 光鎭이요, 字는 仲度이다. 대저 그 人品은 「바람 소리, 빗소리」(敎訓(風聲)), 讀書소리를 두루 귀에 익힌 德을 갖춘 선비이면서, 家事를 비롯하여 國事와 天下事에 이르기까지 関心を 쏟았던 知識人이었다. 그는 文集二十卷을 거의 모두 五言體로 써 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들면, 愛國志士로서 나라를 잃고 天下를 잃는 痛恨을 哀切하게 울부짖었고, 혹은 怒吼했는가 하면, 혹은 默想을 통한 良心의 소리에 苦痛스러운 생각을 파고들기도 했다. 이분은 일찌기 韓國 獨立革命運動에 直接 參加했고, 또한 일이 失敗로 돌아가자 遼東으로 亡命한 선비였는데, 日本 軍閥의 統制 밑에 있을 수 있었는데도, 東亞文明의 抗議精神을 發揮했으며, 조금도 苟且하지 않게 三十餘萬學에 이르는 몇몇하고 獨特한 漢字로 表現한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쌓였던 悲憤으로 가득한 胸中을 털어 냄으로써 後進을 激勵해 주려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나쁜 氣魄인가! 그 心中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 「海岳文集」이 體現하고 있는 바 참으로 高貴함을 能히 고쳐 表現하기란 어렵고, 이 熱情에 넘치는 奔放한 感性 또한 그러하다. 이와 같은 經綸과 마음씀은 隱忍自重한 努力과 端正함에 머무르고 있는 理性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金先生의 높은 志向은 다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歷史를 洞察하여 證據함에 있다. 그가 處世하고 있는 바는 본디 그러한 韓國 獨立志士로서의 不屈不撓한 風骨이로되, 「海岳文集」의 根本精神은 대저 過去를 檢討함으로써 오늘날을 두루 把握하여 將來를 準備함을 힘쓰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는 다만 지난 날을 슬퍼하는 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태우며 걱정하는 데에 있었으며, 또한 未來를 開拓하여 새로운 希望과 새로운 境地를 開拓하여 떠나가는 抱負에 있었던 것이다. 본디 金先生의 어느一代(이른바 中國의 五四運動보다 일찍 일어났던 三一運動時期)는 韓國 知識人이 共通의 認識했던時期였다. 그러므로 「海岳文集」의 思想은 그 代表性을 지

니고 있다고 함에는 議論의 餘地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当代의 東亞史 中에서 大書特筆로 한 페이지를 남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阿片戰爭 以來로 儒家의 礼樂에 의한 教化影響을 받았던 東亞文明은 깊은 傷處를 입었다. 그것은 西方艦船의 艦砲射擊을 堪當하지 못함으로써 그 柔弱點을 드러냈고 움추려 들고 말았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消極的이고 内向的이며 自己卑下에 빠지는 등등의 病弊가 있었다. 다만 半世紀 동안, 일찌기 朝鮮社會를 四百年에 이르는 오랜 歲月에 걸쳐 묵었던 儒家의 倫理는 西歐化의 물결을 타지 않으려는 데에 부딪쳐 몸부림을 쳤으나, 歷史의 狀況은 이미 變化를 이룩했던 것이다. 甲午戰爭(甲午改革)以後 日本의 軍國主義는 礼樂의 教化를 팽개쳐 버리고 霸權을 爭奪함으로써 이를 生存의 方途로 삼아 곳곳에 그러한 社會를 體現하고 그와 같은 侵略意識을 達成했던 것이다. 金先生은 朝鮮民族이 蹂躪당하는 悲慘한 運命을 目擊하고 『儒教가 朝鮮에 들어온 것은 可憐한 일이다. 階級과 服從을 道德으로 삼고, 南北老少의 四色으로 갈려서로 謀陷함에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았다』라고指摘하면서 反儒家의인 부르짖음을 禁하지 못했던 것이다.

金先生은 「高談性名」(性名 곧 道를 高談함. 譯註『程子曰, 心即性也, 在天爲命, 在人爲性, 主於身心, 其實一也』), 「輕視功利」(功利를 輕視함), 「居易俟命」(現在의 地位에 安居하고 더 僥倖을 바라지 않음), 收斂(謹慎함), 「主敬」(恭敬을 尊重함. 譯註『宋나라 때 儒家는 主敬存誠, 곧 恭敬을 尊重하고 誠意를 保存하는 것을 修身의 根本으로 삼았다』), 그리고 「偽喜」 등등의 儒家의 病弊를 반드시 徹底하게 除去함으로써 나라를 救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의 反儒思想은 五四運動時代의 中國學人들이 群起하여 「孔家店」(譯註『孔子의 思想을 퍼뜨리는 一家를 가리키는 造語?』)의 反傳說思想이 서로 비슷한 地方이 許多하게 있음을 攻擊하고 打倒했던 경우에도 打르고 있다.

그는 편하고 넉넉한 것만을 갖추고 儒學을 確實하게 把握함이 없이 朝鮮에 들어온 것을 詰責했으며, (朝野가 한결같이 그 名聲을 기렸던) 退溪가 앞장서서 일을 擔當하지 못한 隱士라고 내리좌את을 뿐만 아니라, 甚至於는 漢文을 널리 登用한 것은 民族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틀을 拘束하는 禍根이 된 것이라고까지 내리 좌את했다.

金先生의 反儒思想은 결코 盲目的으로 傳統만을 指向하여 나아가자는 것만이 아니다. 그의 目標는 活用的인 才能이 없는 腐敗한 儒學者와 識見이 좁은 儒學者의 限界를 打破함을 생각하는데에 있는 것이며, 또한 傳統中에 便在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새로운 田地에 물을 주는 源泉의인 活水를 끌어내는 데에도 있는 것이다. 그는 『儒學者란 兵法을 익힐 수 없음』을 몸소 내세움으로써 機學, 進取 用奇, 伸收 등의 새로운 策略을 救國의 方途로 삼을 것을 提議했다. 그는 『世間의 大小事란 氣魄없이 實行할 수 없고, 天下의 偉大한 功業을 이룩함은 力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며, 그런 까닭에 人間을 善用하는 志士는 英雄의인 事業을 培養함에 勇猛하게 精進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決心的인 重要性을 強調하면서, 가장 進取的인 思想, 神速한 行動, 그리고 優柔不斷함의 斷絶 등을 「決心하는 方法의 세가지 特性」으로서 提唱했다. 그는 愛國人士가 子房과 같은 勇氣와 膽力을 배워야 한다고 呼訴하면서, 『英雄의인 大事業은 決心的인 굳건함에 따름으로써 俱現되는 것이며, 子房

은眞實로震怒했고,氣勢가騰騰한泰나라도 마침내滅亡하고말았다」라고叙述했다. 그의 뜻하는바 본보기는諸葛亮과 같은智慧和才德을 숨겨 간직하고 있는 것, 곧『時機를 가장精微롭게 안 사람은千古에 오직孔明뿐』이라고함과 같은 것이다. 그는唐太宗의『意欲을 드높이고,性情을 줄이려』는 말을稱讚했으며, 이는 집안을 돕고敵을制禦하는良策이라고했다. 그는子房의血氣에 넘친勇猛을 받아 들이고, 여기에孔明의沈黙을지킴과沈着하고묵직한을配合한다면, 마침내唐太宗이이룩한바와 같은霸業을達成하게 될것임을認定했다.『海岳文集』은『兵家は 비록智謀가高貴하다고는 하나, 마음을 피땀투성이인聖賢과 같다』라는 말과또한『뜻을세우고남의 위에 일어서기를 마라』는智謀와勇氣가 있음으로써 비로소尊貴하게 된다』는 말과같이생각을굴리어 지난날을다스리는 우뚝한생각을 드러냄으로써,比較研究하는方式을格別하게採擇하였다. 그는갓가지의 다른角度로儒·仙·兵三家의優劣을討論했다. 그가여기에서 얻은結論은『오늘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가 하면,弱肉強食을 하는危機時代에處해 있는 마당에,儒家의平穩과 實利라든가敬虔함과德育이라는것은頑強한敵人을對應할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脫俗의인靜觀과融會(소상하게理解함)로써時機를 아는決斷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바탕에서 비로소生存할수 있는 한가닥의血路를 뚫어나갈수가 있다』는 것이다.

『海岳文集』의主旨는 이와 같은悲壯한民族自決의心機一轉의建設方案을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榮枯盛衰·剛柔·緩急·動靜·伸斂(뻗어남과萎縮됨)·質情(本質과實情)·知行 등의至極히豐富한啓發課題들을討論했는데, 모두가이主旨와 날카롭게 맞서서理論을세우고 있다. 그의『陽明論』對陽明學의『知行合一』,『心卽理』,『致良知(良知를 다함. 譯註)』良知는『良知良能의 줄임말인데, 이는經驗이나教育에 의하지 않고도알며또한行할수 있는 타고난知能을 말함』 및『事上磨鍊』(實務를 맡아 보며精神修養과意志鍛鍊을 함) 따위의 몇몇主題는嚴密하게解明되고 있고, 朱子學을模範으로 삼는朝鮮의儒學史中에서 그는 以前の사람이 미처提示하지 못한見解를 적지 않게 내어 놓았다. 金先生은 비록陽明의豪放한性情이生死를打破함에 이르고 있음과 또한 뜻을 굽히지 않는 그勇氣에 대하여 거듭自身的肯定的인意思를充分히 밝히고 있기는하나, 다만 그는 基本的으로陽明이心性을 받아들여 공부하는儒門의家法에 머무르고 있음에는贊同하고 있지 않다.

金先生은將來를 내다보면서韓國의富強을 가져오는方法이란 반드시科學과憲法의基礎위에 세우는 데에 있다고認識했다. 튼튼한뿌리를培養하는經驗科學과英國의大憲章을 익혀成就하는 것이 金先生의 이른바『國家를 같이保存하는』基礎가 되는 것이다. 다만 金先生의思想은西歐의인色彩가 짙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는漢醫를 누구보다 뛰어난게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許多하고細密한藥理問題도 다름으로써獨自의인診察法을 내어 놓았다. 그의詩內容에 따르면, 그는自體를 힘써 가꾸는三全之法을 거듭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른바精·氣·神을保全함으로써心身을修養하는 것을基本法則으로 삼은 것이다. 實質의으로『海岳文集』이引用하고 있는典籍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金先生은 술한書籍을 널리讀破한 선비이다. 그의『華陽

講會日記」는 기껏 열흘 동안에 그가 몇부의 큰書籍을 通讀했음을 밝히고 있다. 『젊은 나이로 國內의 賢明한 사람과 碩學을 두루 찾아 다녔으며, 보고 얻은 바가 많다』라고 밝히고 있는 注脚이 說明하고 있는 것은 어김없는事實이다. 그는 各種 資料를 널리 證據하고 두루 引用하여 獨自의 觀點에서 說明하는 能力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經史集(經書·史書·諸子類·詩文集)을 涉獵했던 데에 그 까닭이 있는 것이며, 더욱이나 그는 自身的 見解를 밝힘에 있어서 그것을 實學的으로 뚜렷하게 證明했다.

一九八二年 나는 退溪學會의 서울訪問招請에 應했는데, 이때 永韶博士는 夫人을 帶同하고 釜山에서 일부를 惶急하게 서울로 왔기에서로 胸襟을 털어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 자리에서 그가 特히 金先生의 臨終前의 七律詩一首를 珍貴하게 여기고 아끼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中郎高義天上雪 學士芳名翰花春 萬里達君今握手 藍田先生如知真

一片臺灣泛海中 如今回憶鄭成功 吾人安得喬松壽 聊把滄桑見始終

贈蘇學士景松君이라는 首題가 달린 이 詩一首는 中韓 親善의 아름다운 이야기 한 토막을 反映한 것이다. 永韶博士가 記載해 놓은 바에 따르면, 先祖의 籍이 臺灣·高雄·鳳山인 蘇景松博士와 그는 본디 日本京都同志社中學에서 같이 배웠다는 것이다. 蘇先生은 일찍이 그가 醫專에 들어가서 배우는 四年 동안의 學費를 補助했다. 老先生의 病이 危篤했을 때, 蘇先生은 또한 바쁜 日程을 쫓고 日本으로부터 惶急히 찾아가서 그와 마주 對했으며, 또 그를 代身해서 數十日 동안 醫務를 맡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看病을 하기까지 했다. 蘇·金 兩家는 親交해 온 지 五十年이라는 오랜 歲月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에도 서로 번갈아 늘 來往하고 있기 때문에 그 情誼는 더욱 두텁다.

金先生이 世上을 떠난 지 滿五年이 지난 뒤 韓國은 비로소 光復을 얻어 獨立했다. 그로부터 다시 四十年이 지나 多少의 變革을 거쳤고, 現實的인 時代는 이미 크게 달라졌으며, 이제 비로소 『海岳文集』은 實感을 지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뜻하는 바 말이 꽃피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몸소 그와 같은 高貴한 身分의 人士를 求하려고 하는 마당인지라, 그 한분의 豪傑다운 志士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어, 여기에 當時의 難局을 痛恨히 느끼며 붓을 휘두르며 나의 衷情을 아뢰는 바이다.

一九八三年 六月 二十六日

美國 하버드大學校

壯維明 謹序

譯者 李 木 偶

追慕

府君諱光鎮官名華鎮字仲度號海岳姓金氏新羅敬順王裔孫系出慶州有諱球判書生諱牧成參議生諱善周都承旨生諱泰益察訪生諱德亨生諱謹信以孝特除延日縣監是燕山朝十年甲子歲也在官數載勤謹寬和刮去俗吏干譽之習吏民愛戴頌聲洋溢世稱清白至中宗朝元年丙寅棄官而歸住在長湍花莊山下東向洞乃始祖敬順王墓下洞也構成三間草廬於背山臨水處簷端有龜伏之石巖故名曰龜岩齋仍以自號唯以講授諸子爲事杖屨徜徉有樂而忘老之意生諱侑參奉生諱玉生諱善生諱逸自紹配誠孝根天早失恃怙終身痛慕隱德不顯以處士稱焉卜居於比安邑北道樂村取長湍花莊山名而名其案山今之道樂村花莊山是也於府君爲九代祖高祖諱經漢大成家業性且喜施曾祖諱東範克承先業祖諱應濬善於治家驚咳一聲諸戶諸門驚動至分職任事必隨其品格考諱載裕天資快濶務彰世業而獎進後學爲已任多有所規畫妣安東金氏諱善教女有婦德善於國文而其文章能令人感服以西曆一八八五年四月十八日陰乙酉三月二日生府君于道樂村乃其仲子也氣貌清溫資稟明哲及就學不待鞭督而自底于規繩然體弱而常多委臥猶不廢工潛心自習十三而文理自通十五而無師獨做名振遠近當時比安縣監林秉斗委其子之學外他亦有從其例者如是而自成一小塾以其學不怠而教亦不倦做業日進耳十七而成婚于順天張氏諱聖鶴女于斯時已成遂年一千首作詩計劃儼然自成一家而十八歲時歷訪安禮等地名儒歲甲辰二十歲時更訪安禮禮泉經由槐山而九月至清州華陽參席於朴穀堂李美山兩賢之講會從而就問爲學之方而仰其指導且說其見解而請其匡正問答酬應之際渾然有所自得前途所向之鵠將於此有所決然耳西勢日盛從而科學文明東漸學校之教育自都市始而漸及於地方於此更迷底向際聞大邱友弦書樓之消息應招閱新書籍之自中國來者益其識見新其思潮削髮而入大邱協成高等學校（大邱高等普通學校前身）傾注于新學問之研鑽自壬子十八歲以來被聘清道孔岩學校與大邱明新學校以陶冶後進爲已任乙卯始工漢醫學丙辰六月丁外艱而克遵古禮盡送死之道丁巳四月季公奎鎮天逝心神大沮喪於兩年之喪事醫學專攻之念益鞏固於此際矣戊午世界一次大戰告終平和會議開催於巴里而民族自決之提案刺戟我族之神經越已未三月獨立運動始於京城呼應於此於大邱起草檄文與同志舉事避身歸鄉旋爲追跡數十警吏圍襲洞中押去軟禁當日夜脫監至聞慶轉至東海岸避身於彥陽乃根亭三朔而變裝農夫更步步向北至咸興過會寧潛越豆滿江經由龍井吉林而翌年庚申正月初到達奉天会同同志年余活躍然素以虛弱之體質過勞心神而成疾以同

志之勸告 赴安東縣 靜養治療而 得其回復 待風靜浪息 辛酉正月 乘夜歸家 形容憔悴 是不肖九歲事也一家驚動 喜則喜矣 憂愁亦伴 慈親戰慄於不安恐怖中 祖母只無言落淚而已 伯公勸以更避然 府君處之泰然而談笑自若 徐謀隱遯於醫藥方面而欲遂濟衆之志 反而於大邱 同志尹相泰甫 設立達城月背學校而 請聘以校長 赴任於此 養成後進而至三年 然竟被日當局忌觸而解散 甲子二月遭內艱 哀毀幾滅性 八月應醫試合格 十一月設局於大邱山格河畔而舉家移于此 務助貧民 聲望高而生計零細 且於鄉里 伯公達鎮 性本豪俠 與心友 日事清談 家力縮迫而未暇收拾 奄忽棄世 後事之整理 專屬府君而 其爲關心事 亦大矣 如是內外受難而只以心力 克服難關耳 戊辰永韶入于 大邱高等普通學校（今之慶北高等學校）做至辛未耳 時 滿洲被侵於日本而 其慘狀 實有所不忍聞者 心極不平而與同志同盟休學 不肖最先見黜 府君豫測禍將至而 少不動念 益加激勵 以更新意氣而已 曾自數年前以來 府君被任以新幹會 大邱支部長 有與總務相通者 書與面常常而 不肖居中而常爲之連絡 外此知己之來往 頻頻不絕 或與遠來知友 峻論古往今來事 至於時事 往往交以密談 不知夜之將明矣 閒居喜思索務讀書執筆而 日平均十四五時間 費於是 書籍與原稿恒時堆積於案上耳。

尤極感銘而不敢忘者 不肖醫專在學中之放學歸省時也 若於夏期則 於星夜 使之侍坐於庭前流水邊 說話東西古今哲學之變遷 與人類之文化史 與人間之知性與科學之由來 與格物致知 知行合一 與經驗與進化等 又於嚴冬雪寒 隔小爐而使之對坐 說民族之興亡盛衰 評歷代人物而 結以民族之現實的悲哀 至於鷄鳴 蓋其熱情 真如是也 雖長時說話而辭氣益勵 使兒子起敬起孝矣

甲戌以來 脚氣症發生 雖自認病由於精神過勞 及運動不足而 猶不自止 依然熱心於讀書著作 戊寅秋 兼以黃疸委臥而亦如之 又病肝臟而 少不退要 以是而虛弱過度 竟成痼疾 噫 是歲 永韶卒 醫專（今之延世大學校 醫科大學）勤務于東山病院中 一日退勤 拜謁於門前則 府君與一小紙片 拜受被閱則 有庭前種得葡萄樹 臥見青珠日肥之一詩句 載在矣 時維己卯陽八月末而 老炎暴照庭前葡萄樹 青果之肥茁 尤有顯著於視覺者也 青珠非是永韶之謂耶 種得葡萄樹而日夜栽培者 爲見青珠也 青珠成熟之過程 非是永韶之今日耶 一念及此 如有見府君之心胸於此一紙片上面 對照以府君今日之病弱體則 不覺氣暗暗神昏昏而無言過庭矣

移步庭隅止 難禁兩眼淚 受訓日稀薄 忽如失光被 府君召喚聲 揮淚儀容正 勵步更門前 天地回瑞光 庚辰仲春 府君以省墓與先妣緬奉事 數次往返故鄉後 病勢惡化而 助膜炎 併發矣 不肖時在盈德開業地 距家三百里而 不可闕侍湯

且不可疎忽業務 蒼黃來往兩地 聞此情狀 不遠千里而自日本來訪者 乃我中國友人蘇景松君也 蘇君是台灣高雄省鳳山出身而 與我同期於京都同志社中學 且我在醫專時 四年間補助我學費者也 當時研究於慶應大學中 棄其課程而 急遽來訪代我視務於盈德 使我專力於侍病 管鮑之交誼如有現於此地矣 經數旬而告歸故 深謝至誼而 餞其夫妻於大邱驛頭 歸而見之則 有可憐天上麒麟誼 散降人間未盡情 每過難時飛錫救 傍觀不禁感歎聲之句 以代筆 記在枕頭 此是府君最後之詩而 經二旬後於八月二十日陰七月十七日寅時 靜寂如睡而昇天 享年五十六 發病後 凡六百十四日事也以陰七月二十一日 葬于漆谷郡東明面柳等池北麓卯座之原

客裡生活三十年中 其前半 費之於教育界及巡遊亡命 後半 專念於隱居活動與讀書著作矣 天性謹嚴介潔 好惡愛憎 曾不現於色 大義所在 信念鞏固 少不讓步 不分苦樂而 嚴然於日常生活 超然於俗 界利欲 安貧而樂其樂矣

不肖常欲侍於開業地 然不肯諾之 蓋嫌其與數多同志杜絕 且二次大戰方酣中 關心於世界情勢之朝夕 變化者至大故也 發病前二百三十七日間 即一九三八年三月以後 抄記新聞之有關於內外情勢者 約七萬四千九百餘字而 日平均三百十六漢字也 發病後四百四十二日間 即自一九三八年十一月至一九四〇年二月間 之內外情勢 備盡無遺漏 日平均三百十六拾字也 尤我族之不可忘者 日帝強令之韓族創氏制度也 二次世界大戰中 彼感韓日兩族同化之爲急先務 使我族隨日本式而創氏如伊藤中村等等 使廢棄我固有之姓如金李朴也 一而於學校使兒童 專用日語 若用韓語則 處罰之 此實日帝最後之發惡而 創氏發令之記事 抄錄於最末三行 使後孫感銘而有所發奮焉

二月十一日 日本紀元節 朝鮮氏制度創設二千六百年紀念 內鮮一體具顯 屆出期限八月十日 「氏ハ家ノ稱號ナリ、姓ト本貫ハ 其ノ儘存置ス 好機ヲ逸シテ悔ヲ子孫ニ 殘スコトナカレ」

此後二個月間中斷抄錄 更始自四月九日而 抄錄獨逸軍諾威上陸 與諾威對獨宣戰布告 及獨軍丁抹侵入五月十日 獨軍突然白蘭侵入 六月二十五日 日南支派遣艦艇一部 於佛印海防港 行佛軍武裝鮮除 七月五日 蘇聯軍使用新戰術 空中輸送戰車而進駐羅國 如是而 凡八十八日間 特別情勢之收錄者 約二千四百字 日平均二十五字也 雖在起坐不如意 精神昏迷中而 馳慮於人類之將來 與民族之命運 繼其抄錄於別世十五日前也 府君棄世滿五年後 祖國光復而 爲報此慶 即時參拜於東明禰塋 未知 靈其知也夫 畧記平日聞見 并述所感 以表心胸之萬一云爾

西紀一九五七年 丁酉南至節 不肖孤 永韶 泣謹書

碑文

公諱光鎮 字仲度 姓金氏 新羅敬順王裔孫 系出慶州 有諱球判書 生諱收成參議 生諱善周都承旨 生諱泰益察訪 生諱德亨 生諱謹信 號龜岩 以孝行上聞 除延日縣監 亨泥谷院 公十三代祖 六傳至諱世補 以大臺陸同知中樞府事 是生光國 是生汝鉉 是生經漢 公之高祖也 曾祖東範 祖應濬 考載裕 妣安東金氏 善教女 公以高宗乙酉三月二日 生於比安道樂里第 骨相清秀 聲音弘亮 已知非凡 甫解語數與方名 不教而自知讀書 文義自通 不待糾薰而能自不懈 弱冠歷訪國內賢碩 多所見得 才氣英邁發越 有經綸當世之意 庚戌年大邱協成高等學校 壬子卒業被聘清道孔岩校教師 癸丑移聘大邱明新學校教師 甲寅上京 入大宗教堂 因遍覽全國界 丙辰六月二十九日 丁外艱 葬于安平金谷洞 太子岩 佐便 國谷乾亥龍子坐 己未赴大邱 製獨立宣言書 爲時局所禁 避身遼西 辛酉歸鄉 反而於大邱 被聘月背學校校長 養成後進 至三年 甲子二月二十二日 丁內艱 葬于道樂花庄山西麓甲坐 率家而大邱專攻醫學 設局于大邱山格 施助貧民 此間重任新幹會大邱支部委員長 戊寅秋發肝虫症 庚辰春以先妣緇奉事 還故土數月登山勞力 宿祟更發 情事才畢 是年七月十七日 便不起于寓所 壽五十六 公娶順天張氏聖鶴女 生三男一女 男永憲醫師 永韶醫學博士 永三醫師 女金秉龍漢醫 永憲男邦榮德榮建榮世榮 永韶男祖榮 永三男漢榮主榮 金男斗容 餘皆幼 嗚呼以公高才達識 當板蕩之時 庶乎其有爲也 方其作獨立宣言書 激勵同志 爲敵人所拘禁 其禍將不測 乃能脫四圍之網而北走奉天也 其氣將衝天矣 其胸有萬甲矣 遽欲一朝一夕 合從列強 以解東韓倒縣之命而 奈時之早何 既又隱於城市 以誠嘗百之術 亦非素志 然其於濟衆之志 終始不懈者也 天運好還 乙酉七七太極旗 風飄揚於東土而 公之沒已五年矣 使天假其年則直當路諸人 同籌並策於今之日而 公獨不能 豈不惜哉 公之三子 將樹石于 責全以表隧之文 蓋以知公者莫我若而 其性拙不能爲夸大之辭故也 不敢辭書 此以刻之

檀紀四二八二年己丑潤七月

日

草溪 卞顯純撰